

보도시점 : 2025. 11. 13.(목) 11:00 이후(11. 14.(금) 조간) / 배포 : 2025. 11. 13.(목)

겨울철 안전한 도로 위해 제설대책 본격 가동

-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
- 신속한 제설,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'25년 11월 15일부터 '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.
 -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.
- (제설자원 확보)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소 130% 이상의 제설제(염화칼슘, 소금 등)와 제설장비 약 8.1천대, 제설인력 5.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한다.
 - 고속·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,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(257개소)은 기상청 강우·강설 예보 시 장비(512대) 및 인력(553명) 등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.
 - 또한,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,538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,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(적사함 등) 7,444개를 배치한다.
- (살얼음 예방)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(490개소)*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였으며, 취약시간대(23~07시) 도로순찰을 강화한다.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.

* 고속도로 195개소(재정 162, 민자 33개소), 일반도로 295개소(국토청 239, 위임 56개소)

- 강설·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(20~50%)하고,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(VSL) 및 도로전광표지(VMS)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.

- (대국민 정보제공) 휴게소·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*을 추진하며, “오늘도 무사고 캠페인”을 통해 전 국민에게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**를 전달하여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.

* 국토청·지자체·경찰청·한국도로공사·운수종사자 등 참여,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포

** “오늘도 무사고 캠페인” 통합문구 : “도로살얼음 무조건 주의”, “눈 오면 무조건 감속”

- 또한, 네비게이션(길 도우미) 업체*를 통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.

*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 ⇒ 티맵(T-Map), 카카오네비 등에 위험정보 표출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도로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,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”면서,

- “겨울철 도로 이용 시 ‘눈길 안전운전 요령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유병수 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수 (044-201-3916)
			주무관	이주형 (044-201-4151)

- ▶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,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
- ▶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,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,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, 커브길,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
- ▶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, 필요시 접이식 삽, 랜턴, 담요 등도 비치
- ▶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,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
- ▶ 눈길,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
- ▶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(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)
- ▶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, 구난,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·정차 금지
- ▶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(일반국도 ☎1333, 고속도로 1588-2504 등)를 사전에 확인
- ▶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 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
- ▶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

겨울철 도로위의 암살자 도로살얼음

1 도로살얼음(일명 '블랙아이스')이란?



블랙아이스 (Black Ice)

- 빙판 또는 살얼음판
-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

- 맨눈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이거나 도로색으로 보여 식별 곤란
- 갑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져 차량 제동 곤란, 제동거리 증가로 연쇄 추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 매우 높음

상주 ~ 영천 고속도로 사고



44대 추돌 - 사상자 39명
(사망 7명, 부상 32명/2019. 12. 14)

구리 ~ 포천 고속도로 사고



44대 추돌 - 사상자 37명
(사망 1명, 중경상 36명/2023. 1. 15)

2 도로살얼음 상습 발생지점

- 교량 위, 터널 출·입구, 산모퉁이 음지, 비탈면 구간,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



교량 위



터널 출·입구



산모퉁이 음지



비탈면 구간



국토교통부



경찰청



TS 한국교통안전공단

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우리 모두 함께해요!

3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

- 1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!
- 2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감속!
※ 빙판길에서 사속 40km를 초과 시 제어 불능상태
- 3 급제동, 급핸들조작, 급가속은 절대 금물!
※ 급격한 차량 조작은 차량회전(스핀현상)으로 직결
- 4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운전 필요!
- 5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기!
- 6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 조작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!
※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로 핸들 조작 시 차량회전(스핀현상) 심화
- 7 히터 사용을 줄이고 차량 안을 환기시켜 졸음운전 방지!

4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

- 1 제설차량과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하기
- 2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
- 3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
- 4 제설차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
- 5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,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



국토교통부



경찰청



TS 한국교통안전공단

